

THE 22ND HAHN MOO-SOOK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  
IN HONOR OF YOUNG-KEY KIM-RENAUD

Language, Power, and Ideology in the Koreas: Honorifics and Politeness

<http://departments.columbian.gwu.edu/eall/hms22>

Saturday, May 3, 2014, 1:00-5:30 p.m. Dinner Reception: 6:00-8:00 p.m.  
Harry Harding Auditorium, 1957 E Street, NW, Room 213  
Washington, DC 20052

Featured Speakers:

Lucien Brown (U. of Oregon), Young-mee Yu Cho (Rutgers U.), Shoko Hamano (GWU), Ross King (U. of British Columbia), Kiri Lee (Lehigh U.), Miok Pak (GWU), Ho-min Sohn (U. of Hawai'i), Susan Strauss (Penn State U.), and James Yoon (U. of Illinois, Urbana-Champaign).

EVENT:

The 22nd HMS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 at GW, held in honor of Young-Key Kim-Renaud, who will soon retire from GW after teaching 32 years, explores questions of linguistic politeness in Korean from various angles through time and space. Prominent scholars in Korean linguistics analyze and discuss Korean linguistic etiquette (*önö yejöl*) from the perspectives of grammar, pragmatics, sociolinguistics, historical linguistics, and language ideology. The event is free, but reservations are required. Please RSVP with your name, affiliation, email address, and phone number(s) to Dr. Jisoo Kim, [jsk10@gwu.edu](mailto:jsk10@gwu.edu), 202-994-6761.

BACKGROUND

The HMS Colloquium series provides a forum for academic discussion of Korean arts, history, language, literature, thought, and religious systems in the context of East Asia and the world. The series was created by an endowment established by the estate of Hahn Moo-Sook, one of Korea's most honored writers, to uphold her spirit of openness, curiosity and commitment to education. The 22nd HMS colloquium is co-sponsored by the Korea Foundation,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as well as by GW's Columbian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and Institute for Ethnographic Research. <http://www.gwu.edu/~eall/hms>.

\*\*\*\*\*

조지워싱턴대학교 제 22 회 한무숙기념 한국인문학 콜로퀴엄  
한국어의 경어법과 예절: 시간과 공간을 통해 본 언어속의 힘과 이념

2014 년 5 월 3 일 (토), 1 시-5 시반, 만찬 6 시-8 시  
조지워싱턴대학교 해리하딩강당, 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

연사:

오래전 대학 루시언 브라운 교수, 럿거스 대학 유영미 교수, GW 쇼코 하마노 교수, UBC 러스 킹 교수, 리하이 대학 기리 리 교수, GW 박미옥 교수, 하와이 대학 손호민 교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스잔 스트라우스 교수, 일리노이 대학 윤혜석 교수.

행사내용:

제 22 회 조지워싱턴대학 한무숙기념 콜로퀴엄은 32 년 교직을 마치고 곧 은퇴하는 김영기 교수를 축하하는 모임으로, 북미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한국, 일본 언어학 교수들이 한국어의 언어 예절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 분석하고 언어 범절에서 보이는 힘과 이념에 관해서 토론한다. 한국어를 쓰는 워싱턴 관중의 또 다른 각도의 참여도 흥미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나, 미리 등록 필수: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를 김지수 교수에게 알려주시기 바람: [jsk10@gwu.edu](mailto:jsk10@gwu.edu), 202-994-6761.

한무숙 콜로퀴엄 ([www.gwu.edu/~eall/hms](http://www.gwu.edu/~eall/hms))이란?

미국의 수도에 있는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개최되는 이 연례 행사는 서울 한무숙 재단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으로 1995 년에 설립되었으며, 소설가 한무숙(1918-1993)의 개방성,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교육의 신조를 계승하고 재현하고 있다. 이 콜로퀴엄에서는 한국학의 전통과 인문 분야에 중점을두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현재 학술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석학들을 연사로 모시어 한국의 예술, 역사, 언어, 문학, 사상과 종교 구조등을 동아시아와 세계의 문맥에서 토론한다. 올해 22 회 모임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학번역원의 후원을 받았으며, GW 의 문리과대학, 동아시아어문학과, 시거 (Sigur) 아시아학 센터, 민족학연구소가 공동 후원한다.